

# 이진주 PD “환승연애” 기획전 2만명 접촉…덕분에 좋은 결말

“환승연애” 제목, OTT였기에 선택

“3주 과정 잘 반영된 결말에 만족”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섭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리얼리티였어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섭외했죠. 진솔한 모습을 보여줘서 시청자들도 많이 반응해준 것 같아요.”

다양한 이유로 이별한 연인들이 한 집에 모였다. 지나간 사랑을 되짚어보며 전 연인(X)과 재회하거나,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간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이별에 공감하고 사랑을 응원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끈 티빙 오리지널 연애 리얼리티 ‘환승연애’가 지난 1일 막을 내렸다.

지난 12일 서울 상암동 티빙 사무실에서 만난 이진주 PD는 “기대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다. 출연자들이나 패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었다.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6월 첫 공개된 ‘환승연애’의 기획, 섭외 등 준비 과정은 지난 1월부터 5개월여가 걸렸다. “작가들이 9명 정도 있는데 하루에 몇십 개, 몇백 개씩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고 사람들을 접촉한 게 총 2만명 정도”라고 밝혔다.

“그중 반응이 있는 분들과 전화를 해보며 어떤 분인지 연애관 등을 파악했고, 호의적이고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비밀유지계약을 쓰고 콘셉트를 공개했어요. X에게 연락해보겠다고나 연락처를 줬고, X도 동의하면 비로소 그때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었죠.”

◆X채팅룸 등 ‘환승연애’ 아이덴티티…진솔함 특히 빛난 건 인터뷰

‘환승연애’ 제목이 처음 공개됐을 때 시청자들 반응은 엇갈렸다. ‘환승’이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우려 섞인 시선도 나왔다. 이 PD는 “제목 공개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예측을 못했다.”

환승을 크게 생각지 못해서 면밀히 검토를 못 한 것 같다. 환승이별을 경험한 사람은 거부감이 없었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다”고 말했다.

“TV에서 방송했다면 다른 제목을 택했을 거예요. 제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OTT였기 때문이죠. 비디오 가게랑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비디오가 진열돼 있고, 티빙을 켜볼 때 진열된 심네일과 이름만으로 가장 끌리는 걸 택하는 거잖아요.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제목을 선택했죠. 처음엔 두렵기도 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환승연애’는 처음부터 X를 공개하지 않았다. 출연자들은 자신의 X를 숨기고 생활하며, X나 새로운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마음을 표시한다. 그 과정에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인터뷰, 데이트하는 상대의 X와 채팅, 밤마다 보내는 문자 등으로 감정의 흐름을 담아냈다.

그는 “약간의 틀이 있길 바랐다. X

채팅룸 등 그런 장치가 이 프로그램의 아이덴티티가 되길 원했다”며 “X 공개 전까지 서로 눈치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는데 제일 신경을 썼다. X가 밝혀질 것 같은 장치는 채택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출연자들의 진솔함이 빛난 건 인터뷰였다고 돌아왔다. “인터뷰를 진짜 많이 했는데, 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깨닫는 게 있었다. 인터뷰라고 해도 사실 저희와의 대화였다”고 밝혔다.

“인터뷰 시간이 출연자들에게 일기 쓰는 공간이 되길 바랐어요. 다른 출연자들과 친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공간이 인터뷰 룸이 됐으면 했죠. 친구와 대화하다가 문득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출연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환승연애’의 진솔함도 인터뷰가 곳곳에 들어가 있어서 아닌가 생각해요.”

출연자인 코코-민재, 보현-호민, 민영-주휘, 혜선-정권과 달리 헤임-상우는 뒤늦게 합류했다. 헤임은 서울에서, 상우는 서로의 X가 공개된 제주에서 등장했다. 두 사람은 늦은 합류로 인해 다른 이를 알아볼 시간이 적었던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 PD는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다”며 “솔직히 말하면 테라스하우스나 하트시그널 등 기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많이 봤고 새로운 사람의등장이 주는 임팩트나 그로 인해 바뀌는 분위기, 그런 구성적인 힘이 있어서 설정했다”고 말했다.

“현장 상황에 따라 투입방식이 계속 바뀌었어요. 헤임씨는 혜선씨가(중간에 잠시) 나가면서 이를 정도 일찍 들



어오게 됐죠. 원래 한남동에서 X를 공개하고 헤임씨와 상우씨를 같이 들어오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출연자들이 X 공개를 늦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를 반영하다 보니까 시간 격차를 뒀고 상우씨가 들어오는 시점이 늦춰진 거죠. 상우씨는 좀 많이 아쉬긴 해요.”

◆속마음 잘 알기에 모두 응원하게 돼…연애 리얼리티 해보고 싶었다

연출자이지만 시청자로 응원했던 커플도 있을까. 이 PD는 “각자 입장을 너무 잘 아니까 그때그때 응원하게 됐다”고 웃었다.

“저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들잖아요. (삼각관계인) 정권씨도 응원하고, 주휘씨도 응원했죠. 누구를 편지하느냐에 따라서 응원하는 사람이 확확 바뀌었어요.(웃음) 다 솔직하게 내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을 이 해시키는데 주안점을 뒀죠. 그 사람의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가장 매력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게 그 편집의 목표니까요.”

“환승연애”는 기존 커플이었던 민영-주휘, 새로운 커플인 보현-민재로 결말을 맺었다. “너무 좋은 결말이었죠. 결국 3주간 보여줬던 이야기의 마무리잖아요. 3주간의 이야기가 잘 반영된 결과라서 마음에 들어요. 마무리로 너무 훌륭했죠.”

시청자들도 각 출연자에게 감정을 이입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연애를 되돌아봤다는 반응이 뜻 깊었어요. 저희의 목표는 보편적인 연애의 모습을 여러 카테고리 보여줘서 공감을 많이 이끌어내는 거였죠. 그래서 다양하게 섭외했는데, 10명의 출연자 중 한 명에게라도 자신이나 X의 모습을 대입하는 반응이 가장 보람 있었어요.”

이 PD는 “꽃보다 할배”, “꽃보다 청춘”, “삼시세끼”, “윤식당”, “여름방학” 등 히트작을 탄생시킨 ‘나영석 PD 사단’이다. “그 팀에서 호흡을 맞췄던 스테

프들과 이번에도 다 같이 했다. 수년째 해왔기에 호흡은 당연히 좋았다”며 “출연자들이 상황에 몰입하고 촬영을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세팅을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사실 영석 선배한테 배운 거로 하는 것”이라고 웃었다.

그간 많이 보여준 힐링 능력이 아닌 연애 리얼리티에 도전한 이유로는 “연애 예능을 재밌게 보고 자랐던 세대고, 리얼리티를 하는 입장에서 부러웠던 것 같다. 연애라는 게 사람의 여러 면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관찰 예능으로 가장 복합적인 장르가 아닌가 생각했다. 꼭 해보고 싶었다”고 답했다.

‘환승연애’ 시즌2를 기대하는 시청자들 목소리도 나온다. “보석 같은 출연자들이라서 이런 분들을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운이 너무 좋았고, 시즌2를 하게 된다면 열심히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연애 리얼리티가 처음이었는데 많이 배웠죠.”

뉴스

## 이효리, ‘2021 MAMA’ 호스트…첫 여성 MC



가수 이효리가 국내 최대 대중음악 시상식 ‘2021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즈(Mnet ASIAN MUSIC AWARDS·MAMA) 호스트를 맡는다.

13일 CJ ENM에 따르면, 이효리는 오는 12월11일 오후 6시 CJ ENM 콘텐츠 스튜디오에서 펼쳐지는 이 시상식의 사회를 본다.

오는 12월11일…시상식 사회

MAMA 최초의 여성 호스트다.

그간 MAMA의 호스트는 송중기, 이승기, 송승헌, 싸이, 이병헌, 박보검, 정해인 등이 맡아왔다.

엠넷은 “2021 MAMA”는 ‘메이크업 노이즈(MAKE SOME NOISE)’를 콘셉트로, 다름의 가치를 존중하고 편견을 깨는 새로움으로, 강력한 음악의 힘을 세상에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이효리는 올해 MAMA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닿아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 호스트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MAMA는 지난 1999년 엠넷 ‘영상음악대상’으로 출발한 시상식이다. 2009년 ‘MAMA’로 탈바꿈했다. 2010년 K-팝 시상식 최초로 해외인 마카오에서 개최했다. 2017년 아시아 3개 지역에서 동시에 여는 등 글로벌 시상식을 추구했다.

그간 스티비 워더, 퀸스 존스, 두아 리파, 스눴 독, 위즈 칼리파, 윌.아이.엠 등 스타 해외 뮤지션들도 한국을 찾았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에서 열린다.

MAMA를 총괄하는 CJ ENM 김현수 음악콘텐츠본부장은 “서로 다른 수백만 목소리의 팬들이 어디서든 K팝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 MAMA’는 올해 심사 기준에 글로벌 지표를 추가 도입한다. 지난해까지는 가온차트, 트위터, 유튜브서 집계한 음악 데이터를 심사에 반영했다.

올해부터는 전 세계 167개국에 서비스 되고 있는 글로벌 음원 플랫폼인 애플뮤직의 스트리밍 데이터도 추가한다.

## 송가인, 데뷔 9주년 라이브 방송 진행 팬과 소통



가수 송가인이 데뷔 9주년을 맞아 팬들과 함께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2년 ‘산바람아 강바람아·사랑가’로 데뷔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에 따르면 송가인은 12일 데뷔 9주년을 맞이하여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송가인은 2012년 앨범 ‘산바람아 강바람아/ 사랑가’로 데뷔했다.

자신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송가인은 “오프라인이던 가까이에서 얼굴도 보고, 손도 잡고, 셀카도 찍고 할 텐데 약간 이렇게 세상이 좋아져서 몇몇의 팬만 만나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국에 계신 팬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 뜻 깊은 것 같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진행된 방송에서 송가인은 데뷔 9주년을 축하하는 팬들의 메시지 중 5

개를 선정해 읽고, 실시간 댓글로 올라오는 팬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 마지막으로 송가인은 “좋은 노래 많이 들려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데뷔 9주년을 팬 분들과 함께하니 더욱 더 즐거웠던 것 같다.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 할 예정이 10년, 20년, 30년 오래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 송가인은 음악 활동 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 팬들을 만나고 있다. 현재 송가인은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방송되는 JTBC ‘풍류대장·힙한 소리꾼들의 전쟁’에 출연 중이다.

## 엔하이픈 정규 1집, 26개국 아이튠즈 톱 앨범 1위

26개 국가·지역 차트 정상

그룹 ‘엔하이픈(ENHYPEN)’이 컴백과 동시에 전 세계 아이튠즈 차트를 강타했다.

엔하이픈이 지난 12일 발표한 첫 번째 정규 앨범 ‘디멘션 : 디레마’가 13일 오전 9시 기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전 세계 26개 국가/지역의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특히, 주요 음악시장인 미국과 일본에서 정상에 오를 점이 주목된다.

타이틀곡 ‘탐드-대시드’ 역시 전 세계 6개 국가/지역의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엔하이픈의 이번 앨범은 소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알고 디레마에 빠지지만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달려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탐드-대시드’는 1980년대 감성의 뉴웨이브 장르의 곡이다. 복잡한 세계에 들어간 소년들이 어떤 욕망을 쫓을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디레마 속

에서 다양한 욕망의 모순과 충돌을 경험하며 당혹스러움과 초조함을 느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엔하이픈은 앨범 발매 당일 엠넷에서 컴백쇼를 선보였다. 부채질춤, 킥오프춤 등 포인트 안무가 벌써부터 인기다.

94개국 ‘오늘의 Top 10’ 1위

전 세계 1억 1100만 가구가 ‘오징어 게임’을 시청했다.

13일 넷플릭스는 전 세계 1억 1100만 넷플릭스 구독 가구가 한국 창작자들이 만든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선택해 시청했다고 발표했다.

‘오징어 게임’은 지난 9월 17일 첫 공개 이후, 브라질, 프랑스, 인도, 터키 등 여러 문화권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94 개국에서 ‘오늘의 Top 10’ 1위에 올랐다. 미국에서는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리즈 중 최초로 13일 기준 21일 연속 ‘오늘의 Top 10’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콘텐츠(인도 제외) 총괄 VP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하기 시작한 2015년 당시, 넷플릭스의 목표는 아시아

는 물론 전 세계 한국 콘텐츠 팬들을 위한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콘텐츠를 선보이는 것”이었다며, “우리가 상상만 했던 꿈같은 일을 ‘오징어 게임’이 현실로 만들어줬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민영 총괄은 “황동혁 감독이 오랫동안 구상했던 이야기가 어느 곳에서도 만들어지지 못했을 때,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이 지닌 매력에 반드시 한국은 물론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흔들어놓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돌풍으로 ‘오징어 게임’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6일 ‘오징어 게임’의 주역들인 이정재, 박해수, 위하준, 정호연이 미국 NBC의 간판 토크쇼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펠린’(The Tonight Show Starring Jimmy Fallon)에 출연했고, ‘오징어 게임’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뉴욕 타임스퀘어의 중심에도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달고나 등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해외 팬들의 관심도 높아졌다.